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581>

JCCT 2023-11-69

초등학교 1~4학년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 및 잠재계층유형

Elementary School Children's Trajectories of Self-Esteem in Grades 1 through 4

고슬기*, 김상림**

Seul Gi Ko*, Sang Lim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1~4학년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 및 잠재계층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8~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과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형변화모형이 채택되었으며 변화궤적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총 4개의 잠재계층 집단('고수준-유지', '저수준-증가', '고수준-감소', '저수준-유지')이 도출됐다. 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은 '고수준-유지' 집단이었고, 다음으로 '고수준-감소', '저수준-증가', '저수준-유지'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교육현장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상이한 잠재계층유형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각 유형에 적합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을 제안한다.

주요어 : 자아존중감, 초등학생, 변화궤적, 잠재계층유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 trajectory and latent class types of self-esteem in first to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purpose, the Korean Children's Panel data were analyzed using potential growth model and the growth mixture model. As the results, the linear change model was selected as the most appropriate model. The change trajectory was found to increase slightly as the grade increased. In addition, four latent class groups were derived through: 'high level-maintenance,' 'low level-increase,' 'high level-decrease,' and 'low level-maintenance.' Most children were in the 'high level-maintenance' group, followed by 'high level-decrease,' 'low level-increase,' and 'low level-maintenance' group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 tha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ocal communities pay attention to trend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provide appropriate support for students in each class.

Key words : Self-esteem, elementary school students, trajectory estimation, latent class types

1. 서론

자아존중감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자존

감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로젠버그가 개발한 척도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감정 즉,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정회원, 인천대학교 대학원 유아·숲·자연교육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9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9월 17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3일

Received: September 5, 2023 / Revised: September 17,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Corresponding Author: slkim@i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또는 부정적 태도'를 뜻한다[1]. 미국의 심리학자 너새니얼 브랜든은 『자존감의 여섯 기둥』에서 자아존중감을 '본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기본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이 성공하고 행복해질 권리를 갖고 있다는 확신'으로 정의한다[2]. 정리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과 자기상의 부조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이 연령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한다[3-5]. 에릭슨은 자아존중감을 아동기 발달단계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6],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정서 발달과 사회적응 정도, 성취감과 자기효능감 등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7]. 특히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발달적 전환 경험을 제공하므로, 초등학교 아동의 종단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탐색은 소수의 연구를 통해 진행된 바 있다. 먼저 학년 증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에 대한 선행연구는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1~3학년[8-10], 1~4학년[11], 2~4학년[12] 동안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와 부산교육중단연구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 14].

한편,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차 또한 아동기부터 시작되어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15-16].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에서의 개인차를 분석한 결과, 최

상수준 무변화 집단, 중상수준 증가형 집단, 상수준 감소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의 네 가지 상이한 변화 유형을 가지는 잠재계층 집단이 나타났다[10].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서 이질적인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저학년에서 벗어나 고학년에 접어드는 시기로 이전과 다른 학습환경을 경험하면서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4학년을 포함하여 학령기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과 상이한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초등학교 1~4학년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LGM) 분석으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파악하고,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통해 종단적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개별적인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을 이해하고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1~4학년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1~4학년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유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8차년도(2015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11차년도(2018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했다. 한국아동패널에서 모집단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 전체 표본은 2,150가구이다[15]. 연구대상은 8차년도(2015년)부터 11차년도(2018년)까지 조사 중 자아존중감 문항에서 결측된 경우의 수 491개를 제외한 1659명이다.

2. 연구 도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을 측정을 위해 Rosenberg가 사용한 청소년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에서 아동의 수준에 맞게 MCS에서 5문항으로

축소한 척도를 사용했다[1].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를 좋게 느낀다.” 총 5문항이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응답하는 아동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번 문항(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과 5번 문항(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을 수정하여 조사했다. 자아존중감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는 8차년도 .77, 9차년도 .75, 10차년도 .76, 11차년도 .83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8.0과 Mplus 8.0을 사용했다. SPSS 28.0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Cronbach’s α 를 산출하기 위해 기초통계와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왜도는 절대 값 2미만, 첨도는 절대 값 7미만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였다[16].

Mplus 8.0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1~4학년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2차함수변화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FI*와 *TLI* .95 이상, *RMSEA* .06 이하를 준거로 사용했다[17]. 둘째, 초등학교 1~4학년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했다. 자아존중감의 잠재계층 수는 표본의 비율이 1% 이상만 되면 잠재계층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을 준거로 사용했다. 준거로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a),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모형의 평균분류 정확도 지수 *Entropy*, 비교모형과 통계적 적합도를 나타내는 *VLMR* (Vuong-Lo-Mendell-Rubin), *LMR* (Lo-Mendell-Rubin), *BLRT*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등을 사용했다. *AIC*, *BIC*, *SABIC* 값은 낮을수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되며[18], *Entropy* 지수는 0에서 1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략 .8 이상이면 양호한 분류로, .6 이상이면 보통의 분류 간주한다 [19]. *VLMR*, *LMR*, *BLRT*의 경우 이전 모형(k-1집단 모형)과 현재 모형(k집단 모형)을 비교하여 *p*값을 제시하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 이전 모형이 현재 모형의 적합도보다 더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20].

III. 연구 결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자아존중감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통하여 자료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분석을 통해 자료 분포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먼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8차(1학년) *M* = 3.44, *SD* = .50, 9차(2학년) *M* = 3.46, *SD* = .44, 10차(3학년) *M* = 3.47, *SD* = .44, 11차(4학년) *M* = 3.49, *SD* = .46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변인의 왜도(-1.27 ~ -.94)는 절대 값 2미만, 첨도(.95 ~ 2.50)는 절대 값 7미만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추정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하는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2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선형변화모형과 2차함수변화모형 모두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의 *CFI* = .99, *TLI* = .99, *RMSEA* = .03로 나타났고, 선형변화모형의 초기값 평균(3.44, $p < .001$)과 변화율 평균(.02, $p < .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2차함수변화모형의 *CFI* = 1.00, *TLI* = 1.01, *RMSEA* = .00로 나타났고, 2차함수변화모형의 초기값 평균(3.44, $p < .001$)은 유의하였으나 변화율 평균(.01)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나타난 평균, 분산, 공분산, 모형적합도 모두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모형인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1~4학년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을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는 기술통계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표 1. 자아존중감의 잠재성장모형

Table 1. Latent growth model of self-esteem

모형		무변화 모형	선형 변화모형	2차함수 변화모형
평균	초기값	3.47***	3.44***	3.44***
	변화율		.02**	.01
	2차변화율			.00
분산	초기값	.07***	.09***	.11***
	변화율		.01***	.06*
	2차변화율			.01**
공분산	초기값 ↔ 변화율		-.00	-.01
	초기값 ↔ 2차변화율			.00
	변화율 ↔ 2차변화율			-.00
모형 적합도	χ^2 (df)	105.70*** (8)	10.97 (5)	0.28 (1)
	CFI	.89	.99	1.00
	TLI	.92	.99	1.01
	RMSEA	.09	.03	.00

* $p < .05$, ** $p < .01$, *** $p < .001$

2. 자아존중감의 잠재계층 수 결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으로 분석된 선형변화모형을 바탕으로 발달패턴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2개부터 5개까지 계층 수를 늘려가면서 탐색적 분석을 실시했다. 각 모형별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인 *AIC*, *BIC*, *SABIC* 값과 모형비교검증인 *VLMR*, *LRT*, *BLRT*의 유의확률,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을 확인했다(표 2).

표 2에서와 같이,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인 *AIC*, *BIC* 와 *SABIC* 값은 잠재계층의 수가 올라갈수록 감소했으며 *Entropy*는 모든 계층에서 .75이상의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제시된 4가지 계층 중 2계층과 4계층에서 유의한 *VLMR*, *LMR*, *BLRT* 검증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통계 적합성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소 표본 비율의 기준인 1%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잠재계층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표 2. 자아존중감의 잠재계층성장분석

Table 2.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of self-esteem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i>AIC</i>		6762.834	6599.669	6446.596	6382.587
<i>BIC</i>		6811.559	6664.637	6527.806	6480.039
<i>SABIC</i>		6782.968	6626.515	6480.153	6422.855
<i>Entropy</i>		.805	.783	.767	.757
<i>VLMR</i>		.000***	.467	.018*	.059
<i>LMR</i>		.000***	.479	.020*	.064
<i>BLRT</i>		.000***	.000***	.000***	.000***
계층 n (%)	1	286 (17.24)	47 (2.83)	1200 (72.33)	94 (5.67)
	2	1373 (82.76)	1245 (75.05)	198 (11.94)	265 (15.97)
	3	-	367 (22.12)	221 (13.32)	8 (.48)
	4	-	-	40 (2.41)	1124 (67.75)
	5	-	-	-	168 (10.13)

* $p < .05$, *** $p < .001$

3. 자아존중감 잠재계층유형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분류된 4개의 자아존중감 잠재계층유형 및 그래프를 제시하면 표 3 및 그림 1과 같다.

표 3. 자아존중감의 잠재계층유형

Table 3. Latent class types of self-esteem

계층	집단명	n (%)	초기값		변화율	
			M	SE	M	SE
1	고수준-유지	1,200 (72.33%)	3.60***	.02	.02**	.01
2	저수준-증가	198 (11.94%)	2.87***	.10	.20***	.04
3	고수준-감소	221 (13.32%)	3.42***	.06	-.20***	.03
4	저수준-유지	40 (2.41%)	2.52***	.20	-.05	.10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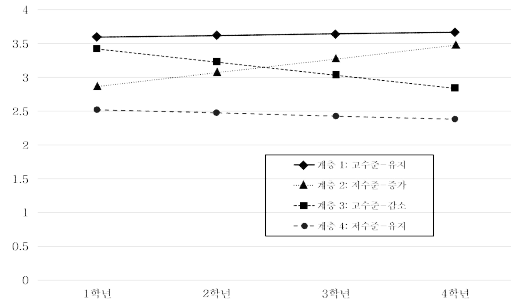


그림 1. 자아존중감의 잠재계층 그래프
 Figure 1. Latent class graph of self-esteem

표 3과 그림 1에서와 같이 계층 1($n = 1,200, 72.33\%$)은 전체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고수준-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계층 2($n = 198, 11.94\%$)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았다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저수준-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n = 221, 13.32\%$)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고수준-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계층 4($n = 40, 2.41\%$)는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저수준-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 및 잠재계층유형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초등학교 1~4학년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을 고찰한 결과,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은 미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형변화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10, 11].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초등학교 1~4학년 자아존중감의 잠재계층유형을 고찰한 결과, 4개의 상이한 집단유형(‘고수준-유지’, ‘고수준-감소’, ‘저수준-증가’, ‘저수준-유지’)이 나타났다. 아동의 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수준-유지’ 집단에 가장 많은 아동이 포함되었으며 이어서 ‘고수준-감소’ 집단, ‘저수준-증가’ 집단, ‘저수준-유지’ 집단의 순이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

~4학년 아동의 약 72.33%가 높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유지하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효식과 이선영의 선행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잠재계층 중 최상수준 무변화 집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10]. 대다수의 아동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약 11.94%(‘저수준-증가’)가 1학년 때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높은 수준으로 변화한 반면, 약 13.32%(‘고수준-감소’)는 1학년 때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년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낮은 수준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거나 높은 아동일지라도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상이한 변화궤적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저학년 아동이 낮거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에 대해 세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거나 유지하도록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약 2.41%(‘저수준-유지’)의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2.41%의 적은 비중이나,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이 일반적으로 학년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5, 6, 7] 낮은 자아존중감이 변동 없이 지속되는 아동에 대해 좀 더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4개년도의 시점을 자료로 사용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고학년 및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이 달라짐을 보고한 바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시점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초등학교 1~4학년의 자아존중감 잠재계층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고찰하는 추후 연구를 제한한다. 셋째,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지속되는 집단에 포함된 아동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아존중감 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4학년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및 잠재계층유형을 잠재성장모형과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먼저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결과, 선형변화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1~4학년까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존중감도 미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잠재계층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집단에 대한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고수준-유지'에 포함되었고 이어서 '고수준-감소', '저수준-증가', '저수준-유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 [1]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C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 N. Branden, *Six Pillars of Self-Esteem* (S. J. Kim, trans.), Seoul City: Gyooyangin Press, 2015.
- [3] K. H. Trzesniewski, M. B. Donnellan, and R. W. Robins,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JPSP)*, Vol. 84, No. 1, pp. 205-220, 2003. DOI: 10.1037/0022-3514.84.1.205
- [4] C. Huang, "Mean-Level Change in Self-Esteem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RGP)*, Vol. 14, No. 3, pp. 251-260, 2010. DOI: 10.1037/a0020543
- [5] U. Orth, R. Y. Erol, and E. C. Luciano, "Development of Self-Esteem From Age 4 to 94 Year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PB)*, Vol. 144, No. 10, pp. 1045-1080, 2018. DOI: 10.1037/bul0000161
- [6]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City: W. W. Norton and Company, 1993.
- [7] L. E. Maxwell, and E. J. Chmielewski, "Environmental Personalization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JEP)*, Vol. 28, No. 2, pp. 143-153, 2008. doi:10.1016/j.jenvp.2007.10.009
- [8] S. H. Kim,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Gender,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JEC)*, Vol. 26, No. 6, pp. 423-440, 2020. DOI: 10.24159/joec.2020.26.6.423
- [9] Y. J. Song, "Change of School-Aged Children's Self-Esteem by Their Academic Ability in Preschool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JED)*, Vol. 42, No. 2, pp. 543-560, 2022. DOI: 10.34245/jed.42.2.543
- [10] H. S. Choi, and S. Y. Lee, "Classification of Latent Class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Focused on Changes in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20, No. 24, pp. 411-434, 2020. DOI: 10.22251/jlcci.2020.20.24.411
- [11] Y. M. Kim,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Self-Esteem in Childhood: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KJCS)*, Vol. 44, No. 1, pp. 57-68, 2023. DOI: 10.5723/kjcs.2023.44.1.57
- [12] Y. S. Choi, and J. Y. Lim, "Th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Autonomy, Overuse of Media Device and Happi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KJCE)*, Vol. 32, No. 2, pp. 201-217, 2023. DOI: 10.17643/KJCE.2023.32.2.11
- [13] D. A. Cole, S. E. Maxwell, J. M. Martin, L. G. Peeke, A. D. Seroczynski, J. M. Tram, K. B. Hoffman, M. D. Ruiz, F. Jacquez, and T. Maschman,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 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CD)*, Vol. 72, No. 6, pp. 1723-1746, 2001. oi:10.1111/1467-8624.00375
- [14] K. H. Trzesniewski, M. B. Donnellan, and R. W. Robins,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JPSP)*, Vol. 84, No. 1, pp. 205-220, 2003. doi:10.1037/0022-3514.84.1.205
- [15]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8th to 13th Survey Data User Guide of PSKC*, Seoul Cit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023.
- [16] H. Y. Kim, "Statistical Notes for Clinical Researchers: Assessing Normal Distribution (2) Using Skewness and Kurtosis," *Restorative Dentistry & Endodontics (RDE)*, Vol. 38, No. 1, pp. 52-54, 2013. DOI: 10.5395/rde.2013.38.1.52
- [17] L. T. Hu, and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Vol. 6, No. 1, pp. 1–55, 1999.
- [18]S. L. Sclove,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Vol. 52, No. 3, pp. 333–343, 1987.
- [19]T. Asparouhov, and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 Mplus Web Notes: Version 11, No. 21, 2021. <http://www.statmodel.com/examples/webnotes/webnote21.pdf>
- [20]Y. Lo, N. R. Mendell, and D. B. Rubin,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Vol. 88, No. 3, pp. 767–778, 2001.